

응구기 와 시용오의 문화이론과 번역의 의미*

이 효 석
(부산대학교)

◆ 국문초록

응구기는 최근 기쿠유어로 쓴 자신의 작품을 50여개 이상의 아프리카 지역어로 번역하는 작업에 관여하고 있다. 이는 로컬의 다양한 언어와 문화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서구의 강한 언어와 문화에 맞서는 구체적인 행동이다. 한편 응구기는 자신의 작품을 영어로도 직접 번역하였는데, 이는 아프리카 문화의 폐쇄성을 막고 외부의 지평으로 열어두는 수평적 운동을 위한 것이다. 요컨대 주변부 언어 간의 대화도 중요하지만, 지배언어와 주변부 언어 간의 대화 역시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때 번역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가교가 된다고 본다.

한편 사이먼 기칸디와 같은 학자는 응구기의 영어소설은 응구기 자신이 보존하려는 기쿠유어가 아니라 오히려 번역언어인 영어를 더욱 강화시켜 주는 것은 아닌지 의심한다. 강한 언어인 영어로의 번역본이 상대적으로 소수언어인 기쿠유 원본의 존재와 권위를 훼손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포스트식민 번역을 다루는 여러 학자들은 '두터운' 번역이 원본의 권위를 훼손하기 보다는 일종의 '새로운' 텍스트로서 문화적 대화와 소통의 메커니즘 속에서 작동한다고 주장한다. 또 응구기는 영어 번역본을 통해 아프리카 외부와 소통하고 아프리카 다양한 지역어로의 번역을 통해 내부와 소통하는 이중적인 전략을 구사한다. 응구기는 번역을 다양한 보편들의 대화와 연대, 나아가 보편적 보편을 탐색하는 가능성의 매체로 본다.

주제어 : 응구기 와 시용오, 번역, 유럽중심주의, 포스트식민, 다양한 중심

* 이 논문은 2007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07-361-AM0059).

1. 들어가며

‘범 아프리카 작가공동체’(pan-African writers' collective)를 표방하는 <잘라다>(Jalada)¹⁾는 2016년 3월 22일 케냐의 나이로비(Nairobi)에서 발행하는 온라인저널 『잘라다 아프리카』(*Jalada Africa*)를 통해 기쿠유어(Gikuyu)로 쓴 응구기 와 시옹오(Ngugi wa Thiong'o)의 단편을 30개의 다른 아프리카어로 번역하여 발표하였다.²⁾ 아프리카 문학사에서 기념비적인 이 사건을 기념하며 무코마 와 응구기(Mukoma wa Ngugi)는 “아프리카어로 쓰고 번역하는 작업”이야말로 “아프리카문학을 탈식민화하는 일”(to decolonize African literature)이라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번역에 있어서, 세계문학과 글로벌문학을 생산하는 영어와 불어가 따로 있고 토착문학, 토속문학, 현지문학, 지역문학, 부족문학을 생산하는 토착어, 토속어, 현지어, 지역어, 부족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오로지 다양한 언어가 있고 다양한 문학이 있을 뿐이다.³⁾

그에 따르면, “천 개의 아프리카어는 천 개의 기회이며 [새로운] 문학사를 구성”하는 일과 같다. 응구기의 기쿠유어(語) 단편을 매개로 하여 다양한 아프리카 지역어들의 언어적 가치와 권위를 복원시키고자 하는 이러한 작업은 서구의 강력한 중심부 언어에 맞서 주변부 언어의 독자성과

1) ‘jalada’는 스와이힐리어로 ‘표지 또는 제본’을 의미한다.

2) 『일어난 혁명: 인간은 왜 일어서 걷게 되었나?』(*Ituika Ria Murungaru: Kana Kina Gitumaga Andu Mathii Marungii*)라는 제목의 응구기의 단편은 인체의 팔 다리 등이 상호 유기적으로 잘 협력하다 머리와 입의 농간에 빠져 순간 서로를 질투하고 다투다 서로는 서로에게 의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원래의 상호 신뢰와 협력의 관계를 회복한다는 줄거리의 우화이다. 이 작품은 이후 다른 언어로 번역을 계속한 결과 2016년 11월 8일 현재 총 55개 언어로 번역되어 “아프리카 문학사에서 가장 번역이 많이 된 단편”이라는 기록을 얻게 되었다. 이는 <https://nairobinow.wordpress.com/tag/ituika-ria-murungaru-kana-kiria-gitumaga-andu-mathii-marungii/> (검색일: 2017. 1. 31)를 참고할 것.

3) Mukoma wa Ngugi, “A Revolution in Many Tongues.” <http://africasacountry.com/2016/04/a-revolution-in-many-tongues/> (검색일: 2017. 1. 4.)

가치를 옹호하는 응구기의 사상에 시발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이한 사실은 『잘라다 아프리카』의 이 번역작업은 ‘아프리카 소수언어’들의 문학이 가능하다는 것을 자기 증명하는 목적을 두고 진행되는 일이지만 여기에는 처음부터 응구기 자신이 직접 참여한 ‘영어’ 번역본이 함께 게재되고 있다는 점이다. 응구기는 영어로 생산된 아프리카문학을 ‘유럽문학’으로 규정하며 아프리카 작가가 유럽어로 문학하는 행위를 부정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 왜냐하면 아프리카의 유럽어 문학은 유럽어권 대중에게 소비됨으로써 아프리카가 생산한 “관념과 이미지의 창고” 즉, 아프리카의 유산을 유럽에 가져다 바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응구기는 이를 “도난당한 유산”(Penpoints 126)이라고 지칭한 바 있다.

하지만 응구기는 기쿠유어로 작업한 그의 후기문학을 자신이나 다른 번역가의 손을 통해 적극적으로 영어로 번역하였다는 점은 언뜻 이율배반적으로 보이기도 한다. 응구기 문학과 사상에 정통한 사이먼 기칸디(Simon Gikandi)는 『마티가리』(Matigari)와 같은 응구기의 소설이 “살아남아 읽히게 된 이유가 그것이 마치 영어로 쓴 소설처럼 읽히고 평가되었기 때문”이라고 판단하며 아프리카어 문학의 영어번역의 효과에 대해 부정적이다. 주변부 언어로 쓴 작품을 강한 언어인 영어로 번역하는 작업은 “양날의 무기(a double-edged weapon)”(Epistemology 166)와 같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포스트식민의 상황은 번역을 둘러싼 여러 층위에 예상하기 힘든 효과를 가져 오는 것은 분명한 것 같다. 하지만 아무리 번역의 효과가 예측불가능하다 하더라도 응구기의 영어번역이 응구기가 기쿠유 원본에서 추구한 “정치적 및 언어적 의도를 배반했다”는 단정 역시 성급한 판단일 수 있다.

세계화와 포스트식민의 상황 속에서 더욱 활발하게 벌어지는 번역의 현상은 최근 포스트식민 문학을 연구하는 진영에서도 번역학에 상당한 관심을 기울이게 만들고 있는 것 같다. 특히 응구기의 ‘다양한 중심의 문화론’이나 ‘문화적 대화로서의 번역’의 개념에 동의하며 이를 토대로 포스트식민 문학과 문화를 고민하는 학자들의 논의가 활발하다. 포스트식민 번역을 다루는 여러 학자들은 ‘두터운’ 번역이 원본의 권위를 훼손하기 보다는 일종의 ‘새로운’ 텍스트로서 문화적 대화와 소통의 메커니즘 속에서 작동한다고 주장한다. 또 응구기는 영어 번역본을 통해 아프리카 외부

와 소통하고 아프리카 다양한 지역어로의 번역을 통해 내부와 소통하는 이중적인 전략을 구사한다. 응구기는 번역을 다양한 보편들의 대화와 연대, 나아가 보편적 보편을 탐색하는 가능성의 매체로 본다.

따라서 필자는 다소 성급하지만 이 글의 결론을 먼저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응구기의 후기 기쿠유어 작품은 기쿠유어 문화의 맥락뿐만 아니라 영문학의 전통을 포함한 전 세계적 문화과의 교감 속에서 읽어야 한다. 둘째, 응구기의 영어 번역본은 ‘두터운 번역’(thick translation)의 개념을 통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응구기는 영어 번역본을 통해 아프리카 외부와 소통하고 아프리카 다양한 지역어로의 번역을 통해 내부와 소통하는 이중적인 전략을 구사한다.

이 글은 우선 응구기의 문화론과 번역론의 관계를 포괄적으로 검토하고 둘째, 응구기의 영어소설의 효과에 대해 부정적인 사이먼 기간디의 주장을 비판적으로 점검하고 셋째, 이를 최근의 포스트식민 번역의 논의와 연관시켜 생각해보고자 한다.

II. 응구기의 문화이론과 번역의 이론

언어의 문제는 응구기의 문학과 문화의 이론에서 논의의 시발점이다. 응구기가 자신의 사상을 크게 빛지고 있는 프란츠 파농(Frantz Fanon)에 따르면, 주변부 주체가 열등한 위치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을 언어의 상실의 문제와 직결된다. 파농이 볼 때, “말하는 것은 특정 언어의 일정한 어법을 사용하고 어형을 이해할 줄 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무엇보다도 이것은 특정한 문화를 상징하는 일이며 문명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Black Skin 8). 다시 말해, “특정한 언어를 소유한 인간은 그 언어가 표현하고 함축하는 세계를 소유하게 된다”(9). 언어는 문화와 문명의 기초로서 기능하기 때문에 각각의 언어는 그것에 상응하는 혹은 고유한 특정한 문화와 문명을 만들어내게 된다는 것이다. 자연히 식민지의 온전한 독립에서 언어의 문제는 중요하게 된다.

따라서 파농의 문제의식을 공유한 응구기가 자신의 조국인 케냐에서

영어와 아프리카어의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한 이유를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무엇보다도 응구기는 영어가 아프리카에서 문제가 되는 이유를 식민주의 시대 제국의 언어였을 뿐만 아니라 포스트식민 시대에도 여전히 지배계급의 권력독점의 수단이었다는 이유 때문이다. 영어를 비롯한 ‘강한’ 유럽의 언어는 제국주의 시대에 유럽을 “문자와 교양계층”과 동일시하고 식민지 아프리카는 “농촌, 구어, 반역사성”(Penpoints 108)과 동일시하게 만들었다. 그런데 포스트식민의 상황에서도 이러한 문제는 묘하게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 응구기의 불만이다. 영어를 이해하고 자유롭게 구사하는 엘리트층과 영어를 모르는 케냐의 다수의 대중 즉, 노동자와 농민은 영어 때문에 구별되고 차별받는다라는 말이다.

이런 논리에서, 영어소설은 문학이라는 문화의 영역에서 영어에 무지한 일반 민중들을 소외시킬 것이며 문화를 향유하고 지배하는 아프리카의 교육 받은 엘리트와 아프리카 밖의 영어권 독자들에게 봉사하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 응구기는 세계에는 하나의 중심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중심이 존재하기 때문에 아프리카의 작가와 지식인들이 ‘아프리카어’라는 아프리카의 유산을 보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정신의 해방과 독립을 위해 핵심은 “유럽의 언어에서 아프리카와 전 세계의 다른 언어로 중심을 이동시키는 문제”(Moving the Center 10) 즉, “중심의 이동의 문제”라고 요약한다.

언어는 응구기가 세계 속 다양성의 평등을 설명하기 위해 자주 드는 예이다. 우리 인간이 사용하는 수많은 언어들은 그것들 간의 차이는 있지만 우열은 있을 수 없다. 당연히 “언어의 접촉은 평등을 기초로 이루어진다.”⁴⁾ 그러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유럽이 근대 이후 비서구 지역을 식민지 지배한 제국주의 시대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적으로 주변부에 여전히 머물고 있는 제3세계의 다양한 언어들은 소수 언어의 곤경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응구기가 볼 때, 이들 지역어인 소수언어로 문학하는 행위는 여전히 세계의 중심언어로 위세를 과시하는 유럽어, 특히 영어와 불어가 중심적 지위를 차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전략이다.

응구기는 어떠한 개별 문화도 “특수성과 보편성(particularity and

4) Ngugi, Interview. <http://postcolonial.org/index.php/pct/article/view/567/859>.

universality)”의 요소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문화의 특이성은 “보편이 자신을 표현하는 양식”이다. 각 개별 문화는 보편성 때문에 “더욱더 많이 공유할 필요”가 있으며 보편적 요소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대화하고 소통할 필요가 있다. 이들 특수는 그 자체로 열등과 우열이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인간 경험의 보편성을 특정한 하나의 문화에서만 찾을 필요는 없다.”⁵⁾

응구기는 특수와 보편의 관계를 언어적 차원에서 다시 설명한다. 그가 볼 때, 언어 역시 ‘특수한’ 동시에 ‘보편적’이다. 하지만 어떤 언어도 그 자체만으로 보편적인 언어가 될 수 없다. 언어적 체험은 기본적으로 ‘지역적’이기 때문에 언어를 통한 인식과 체험은 보편적이지 않다. 영어라고 해서 어떤 언어보다 더 보편적일 수는 없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개별들 사이를 차이 내는 것은 무의미하다. 화단이 다채로운 빛깔의 꽃으로 구성될 때 아름다운 것처럼 세계는 다양한 언어, 다양한 문화, 다양한 중심으로 구성될 때 아름다운 것이다.⁶⁾

응구기의 비유는 단순히 문학적인 비유의 차원이 아니다. 그것은 구체적인 현실에 토대를 둔 실천적인 의미가 있다. 응구기는 단순히 다양한 중심의 현존만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는다. 다양한 중심들 즉, 다양한 문화들이 개별적 단자(單子)들로만 떨어져 현존한다면, 만약 그러할 경우 그것은 보편성을 토대로 하는 대화의 불가능성을 전제하는 상대주의로의 전략을 피하기 힘들게 된다. 가야트리 스피박(Gayatri Spivak)은 각 지역의 역사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주변부의 다양한 문화들과 주체들은 세계의 가장자리가 공유하는 동질적인 포스트식민의 경험을 가진다고 본다. 포스트식민 사회의 역사와 정치적 상황이 동일하게 전개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다. 요컨대 포스트식민성은 “서구 이외 지역의 제국주의의 유산”이며, 이들 지역의 주체들은 “제국의 문화에 접근가능”할 뿐만 아니라 유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들은 서로 소통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서구의 중심부의 거주민들보다 더 쉽게 “초국가성을 확립”(316)할 수 있다는 것이다.

5) *Ibid.*

6) *Ibid.*

응구기는 이와 비슷하게, 포스트식민 국가들이 처한 상황은 보편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고 본다. 포스트식민 주변부 지역의 비극은 제국의 식민 지로부터 독립한 이후의 상황이 독립 이전과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에 있다. 응구기는 『마티가리』의 서문격인 “독자/청자님들께”라는 장에서,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선택한 나라 어디에서든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이다.”(ix)라고 규정한다. 다시 말해, 케냐의 작가인 응구기가 묘사하는 『마티가리』의 사건은 식민과 포스트식민의 경험과 영향의 보편적 상황으로 인해 파생된 유사한 문제를 안고 있는 아프리카를 포함한 트리컨티넨탈 포스트식민 주체들에게 보편적인 사건임을 명시한다. 응구기가 말하는 주변부의 다양한 중심들은 서구의 중심과 구별되면서도 포스트식민적 경험이라는 보편소를 통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각자 개별적인 중심으로 재배치된 주변부 포스트식민 주체들은 이러한 보편적 상황을 어떻게 인식할 수 있는가? 응구기는 이를 ‘예술’의 기능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본다. 그가 볼 때, 예술은 인간과 인간을 “연결”시키는 힘이 있으며 예술의 가능성은 “분리하려는 경계를 돌파하는 것”(7)에 있다. 예술은 앞선 선배들의 작업을 넘어서기 위한 후배들의 ‘영향에의 불안’이 변화의 동력인 것처럼, 그것은 다양한 문화들이 상대주의와 자기 중심주의의 늪에 빠지는 위험을 막아주고 변화를 미덕으로 수용하게 해준다. 응구기는 서구의 중심부 언어와 문화에 저항하기 위한 다양한 로컬의 언어와 문화를 강조하면서도 “지배언어와 주변부 언어 간의 대화 및 주변부 언어들 간의 대화”가 요긴하다고 강조한다. 그는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예술이며 ‘번역’은 개별 문화와 예술들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응구기는 “번역”을 “언어들과 문화들 사이의 대화”로 규정한다. 그는 에메 세제르(Aimé Césaire)의 말을 빌려 “문화의 접촉은 산소”와 같다고 말하면서 번역은 문명이 자폐적 공간에서 병들지 않고 건강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화적 산소 공급인 문화들 상호간의 접촉과 대화가 필요하며 이를 번역이 해줄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Globalectics* 1-2). 요컨대 번역은 문화들과 예술들 사이의 대화적 행위이자 또한 매개체가 된다. 번역은

7) Ngugi, Interview. <http://postcolonial.org/index.php/pct/article/view/567/859>.

특정 지역의 문화를 그 문화가 소속한 더 큰 지역인 대륙과 소통하고 중국에는 전 세계와 열린 대화를 가능하게 하는 도구인 것이다.

응구기의 작품을 출판하는 일에 가까워서 지켜보고 협력한 헨리 차카바(Henry Chakava)는 응구기가 기쿠유어로 소설을 쓸 때부터 “번역의 힘을 깨달았다”(16)고 설명한다. 번역은 문화의 흐름과 소통의 문제와 깊이 연결되어 있는 문제였기 때문이었다. “모든 사회는 일종의 동심원이며 그 자체로 완전”하기에 “그 사회의 좋은 것들은 보다 더 큰 국가 차원으로 흘러들어 흡수될 것이다.” 그런 다음 그것은 “지역 혹은 대륙의 동심원 속으로 흘러들어 흡수될 것이고 오직 최상의 것만이 세계라는 동심원 속으로 들어설 수 있다(17)”는 것이다. 응구기를 비롯한 많은 민족주의 성향의 작가와 문인들은 문화가 민족과 국가, 지역과 대륙을 넘어 세계와 대화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은 바로 번역에 있다고 보았다.

우리는 이러한 동심원들을 가로지르는 가교가 바로 번역이라고 보았다. … 첫 번째 동심원을 넘어선 작품은 키스와힐리어로 번역될 수 있고 중국에는 영어로도 번역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국가적, 대륙적, 국제적 산포가 가능해질 것이다. … 우리의 계획은 이런 식으로 아프리카가 생산한 창조적 생산품 중 최상의 것만을 세계의 다른 지역에 소개하는 것이었다. (17)

응구기는 기쿠유어로 소설을 쓸 때 영어라는 단일한 절대적 중심의 권위를 무너뜨리기 위한 복수의 중심 만들기라는 목표를 겨냥하면서도 소설을 자체 내의 기쿠유어 독자만이 아니라 영어를 매개로 하여 전 세계의 독자를 동시에 목표로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번역을 통한 주변부 문화와 예술의 확산이라는 이 전략은 응구기는 문학의 제도 즉, 포스트식민 사회 내의 영문학과를 새로이 구성하는 문제와도 연결된다. 그는 1972년 발표와 동시에 많은 논쟁을 야기한 글인 「영문학과 폐지에 대하여」(“On the Abolition of the English Department”)의 근본 취지를 설명하는 최근의 어느 자리에서, 그것은 “영문학의 폐지가 아니라” 영문학과의 이름을 “문학과”로 단순화하고 “새로이 커리큘럼을 구성하자”(Globalectics 26)는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그것은 “아프리카

문학과 이에 관련된 문학을 영문학 및 기타 유럽어 문학과 함께 배치”하는 내부적 운동과 함께 “번역 작업이라는 외부적” 운동도 병행하는 운동이었다. 결국 아프리카 문학을 유럽의 강한 언어로 번역하고 또 그 반대의 경우도 모색하면서, 그런 텍스트 전체를 모아 하나의 문학 즉, 세계문학을 구성하자는 의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에게 영어로의 번역은 아주 이른 시기부터 그 용도의 다양성을 인식한 중요한 작업이었던 것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그가 기쿠유어로 창작하고 이어 자신이나 혹은 전문 번역가를 통해 작품을 영어로 번역한 이유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응구기의 영어 번역은 새로운 독자층을 찾는 과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의 구성과 소개와 접촉과 전파를 목표로 하는 다원적 전략이자 새로운 세계문학의 커리큘럼을 구성하는 원대한 기획이었던 것이다.

Ⅲ. 기칸디의 『마티가리』와 응구기 비판

앞에서 우리는 응구기가 영어소설을 포기하고 기쿠유어 소설쓰기를 시작한 이유를 첫째, 주변부 언어로 전략한 민족 언어를 그러한 망각의 동굴에서 해방시키고 둘째, 소설이라는 문화의 장에 기쿠유 언어권의 독자를 입장시켜 그들과의 대화와 공감을 유도하고 셋째, 이를 통해 포스트식민주체의 ‘정신을 탈식민화’하려는 것으로 정리하였다. 그러는 한편 그는 자신의 소설을 영어로 번역함으로써 영어 사용자들과의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응구기의 작품과 사상을 가장 잘 이해하는 비평가 중의 한 사람인 사이먼 기칸디는 구체적으로 응구기의 영어소설 『마티가리』를 예로 들어 응구기의 기쿠유 소설의 애초의 취지와 번역본인 영어소설 사이의 간극에 대해 불만을 제기한다. 『마티가리』의 기쿠유어 원제는 *Matigari Ma Njirũngi*이고 영어번역본은 *Matigari*이다. 그런데 기칸디는 과연 이 소설의 영어번역본이 오로지 영어로만 쓴 이전의 영어소설들과 달리 급격한 “인식론적 단절”을 성취했는지 즉, “식민 언어와 그것의 에피스테메의 감옥으로부터 과연 해방되었는지”(Epistemology 163) 의문스럽다고

주장한다. 오히려 그의 이전의 영어소설처럼 “유럽어에 기원을 둔 소설적 장치와 언어적 실천을 확인”시켜준 것은 아닌지 의심한다. 요컨대 영어 번역본은 기쿠유 원본과 달리 영문학 혹은 서구문학에 익숙한 서구의 독자들의 입맛에 맞춘 변형물이 아니냐는 말이다.

하지만 응구기 자신이 내세운 여러 가지 기준에도 불구하고, 『마티가리』는 그의 인식론적 및 서사적 욕망에 못 미치는 것 같다. 무엇보다도 영어 번역본을 읽은 독자라면 이 소설이 그가 부정하고자 노력한 바로 그 유럽언어의 전통에 얼마만큼이나 포박당해 있는지를 모를 리가 없다.
(…)

응구기는 기쿠유어로 소설을 쓰기 위해서는 구전 전통을 부활하고 성서적 언어를 재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 이것이다. 그가 부활시킨 구전문학성이 유럽의 “리얼리즘” 전통에 경도된 응구기 즉, 신체 및 역사에 대한 세부묘사, 시간성 및 의식을 재현하는 가운데 드러나는 그의 이데올로기와 관련이 있어 보이는 바로 그 전통에 경도된 응구기 자신을 얼마만큼 바로 잡아주고 있느냐 아닌가? (164)

요컨대 기칸디가 볼 때 응구기는 영어소설을 번역할 때 그가 배우고 익힌 영문학의 관습 즉, 그런 전통에 익숙한 영어 독자들을 위한 소설의 전통으로 달아나고 있다는 것이다. 응구기 자신이 표명한 대로 기쿠유어 청중과 교감하고 아프리카적 시각을 소환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기쿠유어 서사장치를 창안”하는 데에 관심을 두어야 하지만 응구기는 서구의 소설에 기원을 둔 “기존의 소설 장르를 전유”(164)하는 수준에 머물고 말았다는 것이다. 결국 기쿠유어 원본과 영어 번역본은 “두 부류의 대립적 청중들을 선택적으로 겨냥한 두 개의 별도의 작품(two different artifacts selectively directed at two antagonistic audiences)”(165)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 기칸디의 결론이다.

기칸디는 응구기가 기쿠유어 원본 *Matigari Ma Njirũngi*를 영어로 번역할 때 영어권 독자들의 읽는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제목’과 ‘표지’에도 변화를 주었다고 지적한다. 이 변화가 지향하는 것 혹은 그것의 효과는 원본이 지향한 주제의 무거움을 덜어주는 것이 되었다는 말이다. 기칸디에 따르면, 원본의 제목인 ‘Matigari Ma Njirũngi’에서 ‘Njirũngi’는

케냐의 마우마우(Mau Mau) 무장투쟁에 참가한 독립운동가에게 ‘총알’을 나타내는 일종의 은어이기 때문에 제목 ‘Matigari Ma Njirũngi’는 ‘총알의 나머지(찌꺼기)’ 즉, 탄피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케냐사람들에게 ‘Matigari Ma Njirũngi’는 인물을 가리키는 호칭이 아니라 무장투쟁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가리킨다. 그런데 영어 제목인 ‘Matigari’는 이러한 맥락을 상실한 채 다만 주인공의 이름에 지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 기칸디의 설명이다. 또 원본의 표지에는 “장총을 두른 채 데드록을 입고 언덕을 오르는 마우마우 전사”(165)가 그려져 있지만 영어 번역본은 이것이 삭제되고 없다. 결국 영어본은 식민지 제국이나 신식민지 케냐 독재정권이라는 국가 권력에 대해 “아무런 위협이 아님” 그런 것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다. 요컨대 영어 번역본은 유럽적 전통에 따라 소설을 읽게 될 독자들에게는 “원본이 부정하고자 했던 유럽적 정체성을 (번역을 통해) 암암리에 인정하는 논리”(166)에 빠지고 말았다는 것이 기칸디의 비판이다.

기칸디는 이러한 변화 혹은 변질을 번역가의 곤경 혹은 포스트식민 번역가의 어려움과 연결시켜 이해하고자 한다. 그는 번역가는 번역의 목적 언어인 영어로 번역할 때 강한 언어인 영어의 문화적 차이를 더 크게 느끼게 된다고 말하며 이를 “번역의 인식론(epistemology of translation)”(166)이라 부른다. 이는 번역하는 언어에 따라 나타나는 사회의 문화적 및 관습적 차이를 번역가가 의식하고 이에 따르기 때문에 나타난다. 응구기의 『마티가리』의 원본과 영어본 사이의 차이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 즉, 마우마우 무장투쟁의 역사성이 나타나고 배제되는 그 차이는 “영어가 기쿠유어보다 더 힘이 강한 정치적 상황”에 있다는 것이다. 기칸디가 볼 때, 응구기의 의도가 기쿠유 텍스트를 모든 번역본이 거기에 복종하는 강한 원본으로 만들고 싶은 것이었다 하더라도 “그 의도는 실패했다.” 그것은 ‘탄피’라는 의미의 ‘Matigari Ma Njirũngi’를 영어본에서 변형시킴으로써 이 말이 갖는 정치적 의미가 삭제된 이유에서 뿐만 아니라 나아가 “번역의 행위 자체”를 통해서도 그러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유려한 영어 번역본”은 “아프리카어를 아프리카인의 경험을 중재하는 언어로 곧추세우려했던 응구기의 의도를 좌절”시키고 있다. 번역본을 유려한 영어로 옮기는 행위는 “양날의 무기”가 되어 “응구기의 텍스트가 살아남아 독자에게 읽히게 해주는 혜택을 주면서도 마치 그것이 영어 소설인양 읽히

고 이야기되도록 만들고 있다”는 것이 기칸디의 주장이다.

다시 말해, 왕구이 와 고로(Wangūi wa Goro)라는 번역가는 응구기 “원본의 정신을 포착하려는 의도”와 “번역의 효율성을 고려한 [번역] 행위”(166)가 상호 충돌하는 곤경에 처하고 말았다. 특히 기쿠유 “속담과 격언”을 그에 적절한 영어로 옮기기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번역가는 “글의 유려함을 위해 이러한 속담들을 지워버렸다.” 따라서 영어 번역본은 “원본을 단정하게 위생 처리한 판본(a simplistic, sanitized version of the original)”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다.

기칸디는 『마티가리』의 영어 번역가가 “원본에 속달할 수 없는 독자의 무능력”을 고려하고 “기쿠유어의 번역불가능한 요소”(167)를 협상해야 하는 번역가 즉, 문화적 기원이 다른 두 언어를 중재해야 하는 난처한 번역가의 곤경을 이해하면서도 그것이 영어라는 강한 언어의 권위와 너무 쉽게 타협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는 것이다. 『마티가리』의 주인공 마티가리가 무장투쟁의 숲을 나서며 스스로 무장을 해제하고 마을로 들어서는 것처럼 소설 『마티가리』는 기쿠유어 원본이 가진 제국인 영국에 맞서 싸운 케냐인의 투쟁의 역사를 무화시켜 영어소설의 전통 속으로 무장해제하고 들어선 것과 마찬가지로 되고 말았다는 것이다.

기칸디의 비판적 논리를 그대로 따른다면, 우리는 『마티가리』의 영어 번역본을 ‘기쿠유어의 까칠한 부분을 제거한 유려한 영어소설’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마우마우 투쟁이 식민모국인 영국에 대한 케냐의 독립투쟁의 획기적인 사건이었다는 점으로 볼 때, 원본의 제목이 암시하는 그러한 맥락을 영어본의 제목이 삭제해버린 점이나 기쿠유어 속담과 격언을 상당 부분 순화시킨 점은 이 소설을 영어권 독자가 읽을 때는 기쿠유어 소설이 아니라 영어소설 정도로 이해하게 될 위험은 분명히 있다. 기칸디가 직접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의 가장 큰 불만은 이러한 효과를 예상하면서도 저자인 응구기가 적극적으로 이를 막지 않았다는 점에 있는 것 같다.

사실 기칸디는 응구기에 대한 평전에서 지적하고 있는 대로, “응구기의 미학은 비록 후기에 파농(Fanon)과 마르크스(Marx)로 경도되지만, 처음부터 매슈 아널드(Matthew Arnold)와 F. R. 리비스(F. R. Leavis)와 연결되는 영국성의 원리”(Ngugi wa Thiong'o 250)에 뿌리를 두고 있었다고 본다. 응구기의 초기소설은 교양과 인생비평을 미학의 기본원리로 삼

는 이러한 인문주의적 전통의 영국소설에 빚지고 있다는 것이다. 기칸디는 “도덕과 감수성”의 인문주의적 영국소설의 전통이 비단 초기소설에만 영향을 준 것이 아니라 “역사와 인식론”(253)에 기초한 이데올로기적 주제의식의 후기 기쿠유어 소설 속에서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고 본다. 요컨대 응구기의 후기의 “성숙한 작품들은 과거의 자신의 문학과와 분명한 결별이 아니라 이러한 과거가 그의 이데올로기적 선언과 서사적 실천 속에 계속해서 출몰하고 있다”(2)는 것이 기칸디의 주장이다.

따라서 기칸디의 “번역의 인식론”이라는 개념은 한편으로는 번역 언어의 성격을 고려하고 타협해야하는 번역가의 곤경을 말하는 것인 동시에 응구기의 후기 작품이 초기의 영국적 소설의 전통과 온전히 결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예들려 말하고 있는 다른 표현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다. 기칸디가 응구기의 이러한 경향을 비판하는 것인지 수긍하는 것인지는 사실 모호하다. 왜냐하면 응구기에 대한 평전에서 기칸디는 응구기가 초기 작품으로부터 결별을 선언한 후기 작품에서도 초기 작품의 경향 즉, 영국 소설적 전통의 그림자를 계속 읽고 있기 때문이다. 번역가가 원전의 정신과 목표 언어의 문화적 차이 사이에서 고민하고 그 흔적을 남긴다는 주장이나 응구기의 후기 작품이 초기 작품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은 그 주장의 논리상 서로 겹치기 때문이다.

다음 장에서는 기칸디의 『마티가리』의 영어 번역에 대한 이러한 불만을 응구기의 다른 후기 영어 번역본과 연결시켜 보았을 때 과도한 불만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나아가 포스트식민 번역에 대한 다른 비평가의 주장을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IV. 기칸디의 불만에 대한 재고: 포스트식민 번역의 가능성

기칸디는 기쿠유어 원본보다 더 강한 영어 번역본 때문에 『마티가리』가 생존하고 있는 현실과 그러한 국제 문화정치학적 맥락에서 작업하는 번역가의 곤경을 이야기하였다. 응구기의 후기 소설에 초기 소설의 영문학 전통의 그림자가 유령처럼 “출몰한다(haunt)”(*Ngugi wa Thiong'o 2*)

는 지적 역시 구연성에 기초한 기쿠유의 서사전통을 지향할 때조차도 영국 소설의 영향력을 온전히 벗어나지 못한다는 말에 다름 아니다. 『마티가리』와 같은 기쿠유어 소설이 “영어 번역을 통해 생존한다”(Pheng Cheah 376)는 역설은 영어 혹은 영어 문학이 “신식민지 국가의 수사와 활동을 위협”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영어 번역 때문에 응구기의 기쿠유 “문화상품의 전 지구적 유통”이 가능할 수 있었지만 “영어 복제품이 원본을 찬탈(usurpation of the original by its English double)”하는 효과를 피할 수는 없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기칸디의 불만이나 이에 동조하는 펑 치아의 주장은 원본을 복제품 혹은 영어 번역본에 의한 피해자 혹은 원작자와 번역가의 고통의 차원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은 재고해보아야 한다. 진정 응구기는 이러한 현실 앞에 고통스러워하고 기쿠유의 문화적 권위는 짓밟히고 있는가? 다시 말해, 주변부 예술가와 번역가는 포스트식민 정치와 세계화의 문화적 상황 하에 수동적인 피해자 혹은 소극적인 동조자의 역할만을 강요받고 있는가? 오히려 응구기는 적극적으로 영어 번역을 이용하여 자신의 기쿠유 문화를 전파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영어 번역은 포스트식민 번역가에게 세계를 향한 새로운 가능성의 창으로서의 기능이 더 많은 것은 아닌가?⁸⁾

사실 『마티가리』 영어 번역본에 대한 기칸디의 불만은 『마티가리』라는 하나의 작품에만 한정해서 볼 때 일면 유효한 비판이다. 하지만 『십자가의 악마』와 『까마귀 마법사』(*Wizard of the Crow*)를 포함한 응구기의 후기 전체 작품을 두고 볼 때, 응구기의 소설은 근대 영문학의 소설 전통과 다른 기쿠유의 구연전통을 문학화하는 특징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응구기의 문학은 하나의 작품만을 떼어놓고 보기 보다는 그의 다른 작품들과 자서전과 비평문 전체 속에서 보는 것이 더 균형 잡힌 시각을 담보한다. 그럴 때 그의 문학이 영문학 혹은 근대유럽문학과 다른 차별성

8) 이 글의 앞에서 소개한 『잘라다 아프리카』의 작업은 응구기의 기쿠유 작품을 50여개 이상의 아프리카 지역어로의 번역과 함께 응구기 자신이 직접 영어로 옮겨 놓았다. 필자를 비롯한 아프리카 바깥의 독자는 영어라는 매체를 통해 응구기와 대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 더 두드러지기 때문이다.⁹⁾ 따라서 필자는 응구기를 비롯한 포스트식민 작가의 작품과 영어 번역본을 다음과 같은 맥락에서 읽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첫째, 응구기의 후기 기쿠유어 작품은 기쿠유어 문화의 맥락뿐만 아니라 영문학의 전통을 포함한 전 세계적 문학과 의 교감 속에서 읽어야 한다. 응구기의 작품 속에 나타나는 영문학의 특징은 그것이 작가의 의도와 달리 그를 괴롭히는 일종의 유명적인 존재가 아니라 그가 적극적으로 전유하는 기법, 소재 및 주제로 보아야 한다. 응구기는 기쿠유 민족을 포함하는 아프리카의 언어와 문학만을 종교적으로 맹신하지 않는다. 그는 중심과 주변의 수직적 관계를 깨뜨리기 위해 언제나 다른 문화와 문학을 향한 문을 열어 놓음으로써 문화의 수평적 관계망을 구축하고자 한다. 그가 늘 강조하듯이, “우리의 손때 묻은 담배통 안에 든 것들” 즉, 아프리카의 전통과 유산을 아프리카 바깥의 “남들과 공유”해야 한다. 따라서 “문학 역시 (담배처럼) 우리끼리 나누고 또 남과 공유해야하는 무엇”(Preface 46)이다. 『십자가의 악마』가 성서와 괴테(Goethe)를 비롯한 유럽문학의 테마와 토머스 하디(Thomas Hardy)와 너새니얼 호손(Nathaniel Hawthorne) 작품의 모티프가 들어 있는 것이나 『마티가리』가 예수의 수난과 부활의 모티프를 강하게 차용하고 있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처럼 응구기는 후기소설을 케냐의 전통 속에 서구 나아가 트리컨티넨탈 주변부의 문학적 전통까지 수용하여 주제와 기법의 ‘보편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즉, 기쿠유 예술적 전통을 중심에 두면서도 그것을 세계의

9) 응구기가 매년 노벨문학상의 후보로 오르면서도 그의 유럽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과 유럽적 문학의 전통을 벗어난 후기소설의 경향으로 수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필자가 볼 때, 응구기는 유럽소설의 양식을 빌려오면서도 그 내용이 유럽 혹은 스웨덴 왕립학술원의 취향을 벗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존 노딘(John Nordin)은 케냐의 대다수 백인들이 응구기의 『십자가의 악마』가 예수를 지나치게 폄훼한다고 비판하는 것을 목격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확실히 응구기의 후기소설은 영문학의 전통보다는 유럽적 관점과 취향을 넘어선 기쿠유문화 혹은 응구기의 독특한 시각이 더 강한 것은 분명하다. 이는 Nordin, “Colonialism on the Cross.”

http://www.amazon.com/Devil-Cross-African-Writers-Thiongo/dp/0435908448/ref=sr_1_1/181-5180183-5024031?ie=UTF8&s=books&qid=1239098264&sr=8-1#을 볼 것.

문학적 전통과의 교감 하에서 적극적으로 차용하여 작업하는 것이다. 이는 그가 문학을 포함한 예술을 문화접촉과 소통의 일환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의 말대로 “문화의 접촉은 문명의 산소”¹⁰⁾와 같기 때문에 다른 문학과 예술 및 사상을 수용하고 전파하는 것은 당연하다. 왜냐하면 문화는 사회의 내적 차원 즉, “문화 자체의 모순이나 사회의 다른 요소들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외적 차원 즉, “다른 사회와의 접촉이라는 외적 환경으로부터 발생”(Moving the Centre 27)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근대 이후 지난 4백년 간 서구의 발전이 서구 자체의 “내적 사회적 역학의 결과”이자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와의 관계의 결과”인 것처럼 중심과 주변의 수직적 관계는 다양한 중심을 만드는 작업을 통해 해체하면서 그 중심들이 새로운 중심주의로 고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서로의 차이로부터 배우고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수평적 운동을 지향하는 것이 중요하다. 응구기의 후기문학이 유럽적 전통을 안에 담고 있는 것은 그의 이러한 문화관이 적극적으로 반영된 결과이다.

둘째, 응구기의 영어 번역본은 ‘두터운 번역’(thick translation)의 개념을 통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발터 벤야민(Walter Benjamin)은 독자적 번역에 집착할 때 번역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경계하는 대표적인 이론가 중의 한사람이다. 벤야민은 그의 유명한 글인 「번역가의 과제」(“The Task of the Translator”)에서, “번역의 본질은 진술 혹은 정보의 전달에 있지 않다”(71)고 하며 그러한 번역은 “나쁜 번역의 징표”라고 단언했다. 그가 원본의 언어와 그것을 번역하는 언어의 관계를 “유사성”이 아니라 “친족 관계”에서 찾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가 원전에 대한 충실성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원본과 번역본 모두 표상작용에 있어 일정한 한계를 가진 개별 언어에 의지하여 생존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기칸디가 “번역의 인식론”이라는 개념을 통해 언어의 한계와 원본에 대한 번역본의 왜곡가능성을 불만스럽게 말하기는 했지만, 기칸디 역시 언어의 차이에 따르는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벤야민이 볼 때, “개별 어휘를 충실히 번역한다고 해서 원전의 의미를 충분히 재현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79). 따라서 좋은 번역을 위해서는 “원본의 의미를 닮

10) Ngugi, Interview. <http://postcolonial.org/index.php/pct/article/view/567/859>.

으려고 하기보다는 원본이 의미화하는 양식을 세밀하게 수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원본과 번역본은 모두 “거대한 언어(a great language)”(79) 혹은 “순수 언어(pure language)”(80)를 구성하는 부분이라는 인식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동일한 대상의 의미를 개별 언어들이 서로 조금씩 다르게 표현하는 것처럼 “번역은 일종의 양식이다.” 번역은 원본의 의미를 뒤쫓아 다니기 보다는 원본의 의미를 번역 안에서 메아리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럴 때만이 비로소 번역가의 “충실과 자유(fidelity and freedom)”가 확보될 수 있다는 것이다.

크와쿠 A. 기야시(Kwaku A. Gyasi)는 번역이론의 다양한 층위를 설명하는 가운데 최근의 번역은 과거의 단어와 문장의 일대일 대응을 지향한 “언어학적 번역”의 개념을 벗어나고 있다고 지적한다. 기야시가 볼 때, 아프리카의 포스트식민 작가들은 그 자신이 작가이자 번역가로서 두 가지 이상의 문화를 잘 알고 이를 의식하여 번역하는 문화번역가인 “비판적 번역가(critical translators)”(24)가 된다. 응구기와 월레 소잉카(Wole Soyinka)를 포함한 포스트식민 작가와 번역가들은 기본적으로 “해석학적 모델(hermeneutic model)”의 번역을 지향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목표 언어가 답을 수 없는 원전의 뉘앙스를 담아내기 위해 번역은 “설명적인” 번역, “원본을 재진술할 뿐만 아니라 설명적인 맥락을 창조하는” 번역을 지향한다. 그래서 번역은 원전이 탄생한 문화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과 해설을 포함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번역의 방식을 “사회-문화적 접근법(socio-cultural approach)”이자 콰메 애피아(Kwame Appiah)의 “두터운 번역”의 개념과 유사하다고 설명한다. 원전과 번역본을 일대일의 언어적 대응에 초점을 두지 않고 원전의 문화적 맥락과 차이를 설명함으로써 원전보다 더욱 ‘두터운’ 번역이 된다는 것이다.

기칸디는 『마티가리』의 영어 번역본이 번역하기 어려운 기쿠유 속담 등이 제대로 번역되지 못했다고 불만을 표시했지만 응구기는 영어 번역본의 서문에 소설 내용의 정치사회적 맥락을 설명하고 있고 또 작품 속에 주석을 첨부하여 이러한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고 있다. 이는 『십자가의 악마』나 『까마귀 마법사』의 영어 번역본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기야시가 설명하는 번역의 해석학적 모델에 따르면, 응구기의 후기 소설들은 그의 다른 영어 비평서와 전기 및 단편들과 인터뷰 등을 포함하여 전체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하나의 문장과 하나의 작품을 원전 그대로 재현하려는 전통적인 번역의 태도를 넘어서서 작가의 글 전체의 맥락에서 바라본다면 기칸디의 불만은 다소 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응구기는 번역을 문화 소통의 대리자이자 포스트식민 문학을 새로운 세계문학의 적극적 구성 주체가 되게 해주는 매체라고 간주한다. 따라서 그는 안으로는 아프리카 소수언어 간의 번역을 촉구하고 밖으로는 영어번역을 통해 세계와 소통하고자 한다. 올리버 러브시(Oliver Lovesey)는 응구기의 이러한 작업이 “영어로만 구성된 세계문학학과들을 해체”하고 새로운 “텍스트와 자원의 서고를 창조”함으로써 “범아프리카적 디아스포라의 지혜의 유산에 접근가능”(184)하게 해준다고 본다. 응구기의 번역의 태도는 “지정학적 실용주의”이며 효율적인 포스트식민 사회의 전략으로 명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잘라다 아프리카』가 추구하는 다양한 언어로의 번역은 “다중심적 번역(polycentric translation)”을 통해 “영어의 헤게모니를 대체”(Nichols 196)하려는 시도인데, 여기에 응구기는 중심에서 있다. 헨리 차카바(Henry Chakava)의 주장처럼, 키쿠유어를 비롯한 아프리카 지역어 간의 상호 번역을 통해 아프리카의 문화유산과 포스트식민 사회의 경험을 공유하고 이를 영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통해 세계문학을 새로이 구성하려는 야심찬 기획(17)은 응구기가 오래전부터 구상하고 실천한 것이었다.

V. 나가며

응구기는 서구의 강한 문화를 대체하기 위해 다양한 로컬의 문화들의 부활과 연대를 강조하면서도 그것이 자기중심주의로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열린 수평적 운동을 주장한다. 이때 “번역”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는 지배언어와 주변부 언어 간의 대화뿐만 아니라 주변부 언어들 서로 간의 대화를 강조하며 “문화의 접촉은 문명의 발전을 촉진하는 산소”와 같고 번역은 이를 매개하는 수단이라고 본다.

응구기는 최근 키쿠유어로 쓴 자신의 작품을 50여개 이상의 아프리카

지역어로 번역하는 작업에 관여하면서 로컬의 다양한 언어와 문화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고 있다. 한편 응구기는 자신의 작품을 영어로도 직접 번역하였는데, 이는 아프리카 문화의 폐쇄성을 막고 그것을 외부의 지평으로 열어두는 수평적 운동을 지향한다. 다양한 문화적 중심을 위한 번역의 개념과 문화 사이의 소통을 통해 문명 발전의 산소로서 보는 번역의 개념이 바로 『잘라다 아프리카』의 초석이 된 것으로 보인다. 아프리카 내부적으로 지역 언어들 간의 번역을 가속화하는 한편 영어로의 번역을 통해 세계와 소통하는 작업은 응구기가 추구해온 문학과 번역의 입장과 일치한다.

사이먼 기칸디와 같은 학자는 응구기의 영어소설이 응구기 자신이 보존하려는 기쿠유어가 아니라 오히려 번역 언어인 영어를 더욱 강화시켜 주는 것은 아닌지 의심한다. 강한 언어인 영어로의 ‘유려한’ 번역이 상대적으로 소수언어인 기쿠유어 원본의 존재와 권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포스트식민 번역을 다루는 여러 학자들은 ‘두터운’ 번역이 원본의 가치를 보존하고 일종의 ‘새로운’ 텍스트가 되어 문화적 대화와 소통의 메커니즘을 작동하게 한다고 주장한다. 요컨대 영어를 통해 아프리카 외부와 소통하고 아프리카 다양한 지역어를 되살려 내부와 소통하는 이중적인 전략을 구사하는 응구기의 번역작업은 다양한 보편들의 대화와 연대, 나아가 보편적 보편을 탐색하는 가능성을 보고 있는 것이다.

■ 참고문헌

- “An Evening of Readings with Prof. Ngugi wa Thiong’o, Nov. 10 2016 Pawa 254 Hub,” *Nairobi Now : arts, culture and events* 11 Oct. 2016.
<https://nairobiNOW.wordpress.com/tag/ituika-ria-murungaru-kana-kiria-gitumaga-andu-mathii-marungii/> (검색일: 2017. 1. 31)
- Bandia, Paul F., “Postcolonialism and translation: the dialectic between theory and practice,” *Linguistica Antverpiensia, New Series – Themes in Translation Studies* 2, 2003.
- Benjamin, Walter. “The Task of the Translator,” *Theories of Translation: An Anthology of Essays from Dryden to Derrida*, eds. Rainer Schulte and John Biguenet, Chicago and London: Chicago UP, 1992.
- Chakava, Henry, “Publishing Ngugi: The Challenge, the Risk, and the Reward,” *Ngugi wa Thiong’o: Texts and Contexts*, ed. Charles Cantalupo, Trenton, NJ.: Africa World Press, 1995.
- Cheah, Pheng, *Spectral Nationality: Passages of Freedom from Kant to Postcolonial Literatures of Liberation*, New York: Columbia UP., 2003.
- Fanon, Frantz, *Black Skin, White Masks*, trans. Richard Philcox, New York: Grove Press, 2008.
- _____, “Frantz Fanon Speech at the Congress of African Writers in 1959,” *Pan-African News Wire* 24 Dec. 2008.
<http://panafricannews.blogspot.kr/2008/12/frantz-fanon-speech-at-congress-of.html> (검색일: 2017. 1. 10.)
- Gikandi, Simon, *Ngugi wa Thiong’o*, Cambridge: Cambridge UP, 2000.
- _____, “The Epistemology of Translation: Ngugi, *Matigari*, and the Politics of Language,” *Research in African Literatures* 22.4, 1991.

- Hall, Stuart, "Cultural Identity and Diaspora." *Identity: Community, Culture, Difference*, London: Lawrence&Wishart, 1990.
- Lovesey, Oliver, *The Postcolonial Intellectual: Ngugi wa Thiong'o in Context*,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16.
- Mukoma wa Ngugi, "A Revolution in Many Tongues."
<http://africasacountry.com/2016/04/a-revolution-in-many-tongues/>
(검색일: 2017. 1. 4.)
- Nantambu, Kwame, "Pan-Africanism Versus Pan-African Nationalism: An Afrocentric Analysis," *Journal of Black Studies* 28.5, 1998.
- Ngugi wa Thiong'o, "African Identities: Pan-Africanism in the Era of Globalization and Capitalist Fundamentalism," *Macalester International* 14.9, 2004.
- _____, "After 50 Years, Unity Is Still an African Dream,"
The Guardian 23 May 2013.
<http://www.theguardian.com/commentisfree/2013/may/23/unity-dream-african-union-inspire> (검색일: 2017. 1. 4.)
- _____, *Decolonising the Mind: the Politics of Language in African Literature*, Oxford: James Currey, 1986.
- _____, "Europhone or African Memory: the Challenge of the Pan-Africanist Intellectual in the Era of Globalization,"
Wajibu: A Journal of Social and Religious Concern 21, 2004.
http://africa.peacelink.org/wajibu/articles/art_7516.html (검색일: 2017. 1. 4.)
- _____, *Globalectics: Theory and the Politics of Knowing*, New York: Columbia UP., 2014.
- _____, Interview, "From the Garden of Languages, the Nectar of Art: An Interview with Ngugi wa Thiong'o,"
Postcolonial Text, With Uzoma Esonwanne, 2.2, 2006.
<http://postcolonial.org/index.php/pct/article/view/567/859>. (검색일: 2017. 1. 4.)
- _____, *Matigari*, Trenton: Africa World Press, 1998.

_____, *Moving the Centre: the Struggle for Cultural Freedoms*, Oxford: James Currey, 1993.

_____, *Ngugi wa Thiong'o Speaks: Interviews with the Kenyan Writer*, eds. Reinhard Sander & Bernth Lindfors, Trenton: Africa World Press, 2006.

_____, "Preface to Devil on the Cross," trans. Evan Mwangi, Appendix to "Gender, Unreliable Oral Narration, and the Untranslated Preface in Ngugi wa Thiong'o's *Devil on the Cross*," *Research in African Literatures* 38.4, 2007.

Nicholls, Brendon, *Ngugi wa Thiong'o, Gender, and the Ethics of Postcolonial Reading*,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16.

Nordin, John, "Colonialism on the Cross."

http://www.amazon.com/Devil-Cross-African-Writers-Thiongo/dp/0435908448/ref=sr_1_1/181-5180183-5024031?ie=UTF8&s=books&qid=1239098264&sr=8-1#. (검색일: 2017. 1. 4.)

Spivak, Gayatri Chakravorty, *Outside in the Teaching Machine*, New York: Routledge, 2009.

❖ ABSTRACT

Ngugi wa Thiong'o's Cultural Theory and Its Significance in Translation

Lee, Hyoseok

With emphasis on various local cultures to confront the Western central culture, Ngugi wa Thiong'o proposes them 'to move horizontally' so as not to repeat the oppressive culture of the West. We need not only dialogues between dominant languages and peripheral languages, but also between marginal languages. With respect to this point, Ngugi thinks that translation itself could be very effective.

Ngugi wants to stimulate writing and speaking in marginalized languages and promote translation as a means of making these languages visible. He regards translation as a conversational tool among languages and cultures in the multicultural global community. As is already well known, his determination to write his later works only in his native Gikuyu language has a great meaning in his anti-colonial as well as anti-neocolonial movement. Its proof is his recent effort to cooperate with *Jalada Africa*.

Simon Gikandi criticized the English translation of *Matigari* as a denial of cultural hegemony of Gikuyu language and its subordination to the global cultural market. However, the concept of 'thick translation', helps us move from Gikandi's doubt of the 'epistemology of translation' to a meaningful strategy of postcolonial translation. Facing some of the scholars' doubts related to his over-stressing language problem, Ngugi points out that the world has managed to function well through translation: the possibility of translation between cultures and translation as a mediating tool for communication nationally as well as internationally. Based on this two-sided solution of translation, he believes that we can overcome the opposition between relativity and universality, center and periphery, and the dominant and the subordinate.

434 비교문화연구 제46집(2017.3)

Key Words : Ngugi wa Thiong'o, Translation, Eurocentrism, Postcolonial,
Various Centers

■ 논문접수일 : 2017. 02. 10

■ 심사완료일 : 2017. 03. 01

■ 게재확정일 : 2017. 03. 03